

22

영선반 작업 중 백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성별	남	나이	48세	직종	설비공 등	직업관련성	높음
----	---	----	-----	----	-------	-------	----

1 개 요

라○○(남, 48세)은 1977년부터 건물전체에 대한 설비 및 보수작업을 하는 영선반에서 근무하였다. 2000년 3월부터 체중감소와 피로, 건강진단에서 폐질환의심을 받아 오던 중 2000년 8월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근로자 라○○는 자동차용 원동력 이송장치와 차의 골조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에서 22년 간 공장 전체에 대한 설비보수 작업을 하였다. 담당업무와 노출가능물질을 살펴보면 목공작업시 목분진, 페인트 도색작업시 유기용제와 페인트 분진, 바닥 아스타일 보수작업과 FRP 작업시 유기용제 등과 천장텍스 개보수 작업, 칸막이 보수작업, 지붕 슬레이트 보수작업, 아스타일작업시 석면분진, 기타 작업시 각종 분진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폐암과 관련된 유해인자로는 석면분진이다. 석면분진은 천정 텍스 개보수 작업시 텍스에 함유되어 있을 석면노출과 지붕 슬레이트 보수작업시 슬레이트에 함유되어 있을 석면노출과 아스타일작업시 아스타일에 함유되어 있을 석면분진이었고 천정 텍스, 슬레이트, 아스타일에 모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

1995년 특수건강진단에서 폐질환이 의심되었고 1999년 건강진단에서 흉부질환의 심으로 진단받았다. 2000년 4~5월경부터 체중감소가 심하고 피로감이 있어 진료받은 결과 폐암의심으로 진단받아 전원하여 기관지경검사를 실시한 결과 편평상피세포암으로 확진되었다. 22세부터 시작하여 2000년 8월까지 하루 7~8개피를 흡연하였다.

4 고찰 및 결론

석면은 석면폐증(Asbestosis), 폐암(Lung cancer), 중피종(Mesothelioma), 장관계 암, 후두암, 원형무기폐, 흉수나 흉막염까지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어 선진국에서는 이미 규제대상이거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근로자 라○○의 경우 영선반 업무를 담당하면서 천정 텍스 개보수 작업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고, 기타 경량 칸막이 보수작업 및 지붕 슬레이트 보수작업, 아스타일 교체작업시에도 칸막이와 슬레이트, 아스타일의 절단작업시 석면에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 라○○의 폐암(편평상피세포암)은 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